

## 쌍백당 이세화의 시 속에 담긴 술의 일상성 고찰\*

이황진\*\*

<차 례>

1. 서론
2. 쌍백당 이세화와 술
3. 이세화의 시 속에 담긴 술의 일상성
4. 결론

### <국문초록>

쌍백당 이세화(1630-1701)는 기사년(1689)에 인현왕후 폐위가 불가함을 극간한 일로 그 절개와 충정을 인정받으며 당대에 인망이 높았던 인물이다. 본고는 이세화의 시 중에서 술이 등장하는 시를 대상으로 하여 그의 일상 속에서 술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를 고찰한 글이다. 이세화의 문집인 『쌍백당집』에서 술이 등장하는 시는 전체 시의 2/5가 넘을 정도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간 술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대부분이 술의 공효와 칭송, 술의 폐해와 경계, 취흥과 풍류, 근심 걱정을 잊기 위한 수단, 신선세계나 이상향 추구 등과 같이 술이 줄 수 있는 효능이나 술에 취한 후 얻게 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며 문학적 의미가 부여되어 왔다. 하지만 이세화의 시에서는 술의 그러한 효능은 거의 드러나지 않으며, 술은 이세화의 평범한 일상을 드러내주는 소재로 활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기사년 이후에 지어진 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을 때, 필자가 파악한 이세화의 시 속에 담긴 술의 일상성은 세 가지이다. 첫째, 이세화가 귀전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평온함이 술을 통해 형상화 되어 나타난다. 둘째, 친구에 대한 그리움과 기다림이 술로 표출되어 나타난다. 셋째, 술은 임금을 사모하는 마음과 임금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새삼 고취시키기도 한다. 이처럼 이세화의 시에서 술은 그의 일상

\* 이 논문은 2020학년도 단국대학교 대학연구비 지원으로 연구되었음.

\*\* 단국대학교 연구전담 조교수

을 꾸밈없이 담백하게 담아내는 소재로 활용된다. 이는 질박함이 많고 가식이 적었던 이세화의 성격과 검소하고 청렴했던 그의 삶의 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인다.

18세기는 일상의 문학적 가치에 대한 탐색이 보다 광범위하게 시도된 시기였다고 평가받는다. 이세화는 일상을 소중히 여기고 이를 시의 중요한 소재로 삼았던 작가라는 점에서 그의 시에는 17세기 말에서 18세기로 넘어가는 시기의 시적 경향이 일정 부분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이세화, 기사년(1689), 술, 일상, 일상성

## 1. 서론

시대를 불문하고 문학의 주요 소재가 되어온 것 중의 하나는 바로 ‘술’ 일 것이다. 이는 술이 어느 시대이건 인간의 생활과 늘 같이 해왔기에 인간의 삶이 반영되는 문학에 그것이 자연스레 담겨져 왔기 때문이다. 특히 한시와 술을 중요한 교유 수단으로 여겼던 사대부들에게 술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소재가 되어 왔다. 본고는 기사년(1689)에 인현왕후의 폐위가 불가함을 목숨을 걸고 극간한 일로 그 충절을 인정받은 인물인 쌍백당(雙柏堂) 이세화(李世華, 630-1701)의 시 속에 담긴 술의 일상성을 고찰해 보고자 기획되었다. 이세화의 시 중에서 술이 등장하는 시를 대상으로 하여 그의 일상 속에서 술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 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sup>1)</sup> 본고에서 말하는 ‘술의 일상성’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한다. 하나

1) 일상의 사전적 의미는 ‘매일 반복되는 보통의 일’이다. 김남기의 견해에 따르면 일상은 동시대인이 공유하는 삶의 정형성이면서도 계층적, 지역적, 문화적, 연령적, 성적 차이를 지니는 상대적인 개념이다. (『일기 등의 잡기에 나타난 조선후기 문인의 일상과 의미』(『국문학연구』 14, 국문학회, 2006, 106쪽.) 따라서 본고에서 다루는 일상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일상이 아닐 수도 있지만 이세화에게는 일상인 것을 다루는 것이라 하겠다.

는 술보다는 이세화의 일상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진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술의 효능이나 기능보다는 이세화의 일상을 읊은 시에서 술이 시의 소재로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에 초점이 맞춰진다는 것이다. 작품 안에 수용된 일상이란 이미 작가의 감수성과 안목에 의해 선택받은 대상이자 예술 장르의 속성을 통과한 것들<sup>2)</sup>이므로 이세화의 시에 나타난 그의 일상은 이세화의 시세계와 문학관을 엿볼 수 있게 하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고전문학과 술의 관계에 대해 연구한 글들이 적지 않은데 이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재선은 술의 문학적 위상을 고찰하며 ‘전통적인 한국시나 중국시에서 술은 우정의 상징이면서 불안·공포·변화·무상관을 푸는 주요 상징’으로 활용되어왔다고 하였으며,<sup>3)</sup> 장덕순은 우리의 고전문학을 대상으로 술과 문학의 관계를 개괄하며 ‘문학과 술의 공통성은 진실에 있기 때문에 서로 가까워진 것이라’<sup>4)</sup>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성범중은 한문학에 나타난 술의 형상화 양상을 1) 술의 공덕 예찬, 2) 술의 유래와 공과의 기술, 3) 술의 폐해 경계(①도덕적 당위성에 따라 과음을 경계한 작품, ②과음으로 인한 자기의 잘못을 반성하는 작품, ③과음을 스스로 경계하는 작품, ④타인의 과음을 훈계하는 작품)로 분류하여 고찰하였다.<sup>5)</sup> 장사선은 한국 고전문학에서는 술이 1) 피안 여행의 술, 2) 풍류의 술, 3) 경계의 술로 나타난다고 분석하였으며,<sup>6)</sup> 황병익은 고전시에서 술은 1) 신인(神人) 감통(感通), 인간의 기원, 2) 취흥(醉興)과 어울림, 3) 인생무상과 해우(解憂)와 자기 위안, 4) 벽사(辟邪)와 치병(治病)과 축수(祝壽),

2) 김동준, 「한시에 나타난 일상의 의의와 역할」, 『국문학연구』14, 국문학회, 2006, 6쪽.

3) 이재선, 「술의 문학적 위상」, 『한국문학주제론』, 서강대학교출판부, 1989, 215쪽.

4) 장덕순, 「술과 문학」, 『한국식문화학회지』 4-3, 한국식생활문화학회, 1989, 278쪽.

5) 성범중, 「한문학에 나타난 술에 대한 인식과 그 형상화 양상」, 『한국한시연구』 6, 한국한시학회, 1998, 315~362쪽.

6) 장사선, 「한국문학에 나타난 술」, 『주류산업』 16-2, 한국주류산업협회, 1999, 28~36쪽.

5) 초월의 상상과 신선 세계의 구현으로 형상화되어 나타난다고 분석하였다.<sup>7)</sup> 안영훈은 술과 관련된 명작을 다수 남긴 이규보(1168-1241)와 정철(1536-1593)을 중심으로 하여 한국 고전작가와 술의 친연성을 고찰하였으며,<sup>8)</sup> 김진욱은 정철 한시의 이상향 모티프의 하나로 술을 꼽고는 ‘긍정과 부정의 이중주, 주(酒)’의 관점에서 술의 문학적 의미를 분석하였다.<sup>9)</sup> 반면, 윤재환은 채유후(1599-1660)가 ‘술에 의한 흥을 작품의 배경 정서로 삼았지 술 그 자체에 대해 어떠한 목적이나 의미를 두지는 않았다’고 분석하며 채유후의 시에 나타난 술의 기능과 한계에 대해 고찰하였는데,<sup>10)</sup> 이는 한시 속의 술 관련 연구의 방법과 범위를 확장 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필자가 본고에서 이세화의 시 속에 담긴 술의 일상성을 살펴보고자 하는 이유는 『쌍백당집』에 수록된 시 중 술이 등장하는 시가 전체 시의 2/5가 넘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다가,<sup>11)</sup> 무엇보다 그의 시에 등장하는 술은 술 관련 선행연구에서 다루어졌던 내용들과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간 술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대부분이 술의 공효와 칭송, 술의 폐해와 경계, 취흥과 풍류, 근심 걱정을 잊기 위한 혹은 자기위안을 위한 수단, 신선세계나 이상향 추구 등과 같이 술이 줄

7) 황병익, 「고전시가에 나타난 술의 문학적 의미 고찰」, 『한국시기문화연구』 37, 한국시기문화학회, 2016, 285~323쪽.

8) 안영훈, 「한국 고전작가와 술 - 이규보와 정철을 중심으로」, 『동아시아고대학』 55, 동아시아고대학회, 2019, 9~21쪽.

9) 김진욱, 「송강 한시의 이상향 모티프 酒·夢·鶴」, 『한국시기문화연구』 92, 한국시기문화학회, 2011, 91~117쪽.

10) 윤재환, 「호주 채유후의 시에 나타난 술의 기능과 한계」, 『한국한시연구』 17, 한국한시학회, 2009, 93~119쪽.

11) 『쌍백당집』에 수록된 시는 卷1상에 오언절구 14제 21수, 칠언절구 79제 115수, 오언율시 37제 41수, 오언배율 2제 2수, 오언고시 2제 2수, 卷1下到 칠언율시 66제 78수, 칠언고시 3제 3수로 총 203제 262수이다.

수 있는 효능이나 술에 취한 후 얻게 되거나 보게 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며 문학적 의미가 부여되어왔다. 하지만, 이세화의 시에서 술은 오히려 평범한 일상을 대변해주거나 무난한 일상에 소소한 즐거움을 더해주며 이세화의 일상을 드러내주는 정도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이세화가 술 그 자체에 어떠한 목적이나 의미를 두고 시를 읊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일상을 읊은 시 속에 자연스럽게 그가 좋아하고 즐겼던 술이 담겨지게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에 필자는 본고에서 이세화의 시를 통해 그간 도외시 되어왔던 술의 일상성에 대해 생각해 보고 그 문학적 의의를 찾아내보고자 한다.

## 2. 쌍백당 이세화와 술

이세화의 본관은 부평(富平)이며, 자는 군실(君實), 호는 칠정(七井), 쌍백당(雙柏堂)이고 시호는 충숙(忠肅)이다. 이세화는 당시 소론의 핵심 인물인 남구만(1629-1711), 박세채(1631-1695), 조사석(1632-1693), 최석정(1646-1715) 등과 친분이 깊었음을 『쌍백당집』에 수록된 시를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 사후 남구만이 <吏曹判書忠肅李公神道碑銘>을, 최규서(1650-1735)가 <行吏曹判書贈領議政李公諡狀>을 찬(撰)하였고, 조태억(1675-1728)이 『쌍백당집』 중간본의 서문을 썼는데, 이들은 모두 소론의 영수 역할을 했던 인물들이다. 이를 통해 이세화가 소론계열에서 상당히 비중 있는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세화는 정쟁의 중심에서는 벗어나 있던 인물이었다. 이세화는 아우 이세유(1645-1711)가 1694년 50이란 늦은 나이에 별시 문과에 급제<sup>12)</sup>하여 벼슬길에 나가게 되

12) 『숙종실록』 숙종 20년 갑술(1694) 11월 29일 기사, “新及第 李世白이 重臣과 이름이 같은 것을 들어 吏曹에 謫告하고 이름을 ‘世維’로 고쳤다.”

자 “네가 출신하여 벼슬길에 오르는데 나에게 본받을 것이 별로 없을 것이나 다만 내가 당론을 좋아하지 않는 것처럼 하고 나라 일에만 힘쓰라.”<sup>13)</sup>고 경계하였다. 이렇듯 그는 정쟁보다는 임금과 나라만을 생각하는 충신의 면모를 유지하였던 인물이다.

이세화의 시문에 대해 언급한 당대의 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태억은 “공은 처음부터 시문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었으며 또한 문인으로 자처하지도 않으셨으나 흥이 나서 읊으시면 깊이 생각도 않으시고 붓기는 대로 휘둘러도 기운이 호탕하고 말은 호방하여 울과 성에 비교될 자가 없었다. 중간에 귀양살이를 한 뒤 지으신 글이 모두 귀중하여 시 한 편이 나오면 사람마다 다투어 서로 전하며 외우더니 <不如意歌> 한 편은 당시 사람들에게 회자되며 서울의 종이 값이 오를 지경이었다.”<sup>14)</sup>며 이세화의 문학적 재능을 칭송하였다. 그리고 남학명(1654-1722)은 “이판서 세화가 기사년 이후 파주에 거하였다. 이웃한 한생이 집에서 도화주를 빚었는데 술이 채 익지도 않은 가운데 불이 나는 화를 당했다. 이공이 시에서 ‘원컨대 한공 지봉의 불이 되어, 도화의 몇 섬 술을 다 마셔 보리라.’라고 읊었는데 이 또한 훌륭하다.”라며 <불여의가>를 높이 평가하였다.<sup>15)</sup> 이

13) 崔奎瑞, <行吏曹判書贈領議政李公諡狀>, 『富平李氏大同譜』卷1, “公弟世維登第分戒之曰, ‘汝出身登仕, 吾事他無足法, 但學吾不喜黨論, 盡心國事可也.’” (부평이씨대중회 <http://www.bplee.net/>)

14) 趙泰億, <雙栢堂集序>, (李世華) 『雙栢堂集』, (趙泰億, <雙栢堂集序>, 『謙齋集』卷41): “又未嘗以文人自名 而遇興吟嘯 略不經意 信筆揮灑 氣豪語放 非排比聲律者所可及. 中間放廢後所作, 益可貴重, 每一詩出, 人人競相傳誦, 如不如意一篇, 膾炙一時, 都下至於紙貴.”

15) 南鶴鳴, <詞翰>, 『晦隱集』第五『雜說』, “李判書世華, 己巳後居坡州, 隣有韓生家釀桃花酒, 未熟而遭回祿之患. 李公賦詩曰‘願作韓公屋上火, 吸盡桃花數斛酒.’亦自佳.” <不如意歌>는 26구로 된 칠언고시로, 제목만으로 볼 때는 자기의 뜻과 같지 않은 세상을 원망하고 한탄하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술을 좋아하고 즐기는 자신의 마음을 온전하게 알아주는 친구가 없으며 한탄하고는 술을 한없이 마셔보고 싶다는 마음을 재치있고 해학적으로 표현해 낸 시이다.

정제(1670-1737)는 “평소 선생께서는 자신의 글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었으나 정대한 기상과 호방한 풍모로 흥얼거리듯 내놓으신 글을 세상 사람들이 얻게 되면 보배를 얻은 듯이 여기었다. …… 명곡 최공은 ‘쌍백당은 도위공같이 모든 일을 다스리면서도 글과 말이 청결하고 탁월하여 근세의 문필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도저히 미칠 수 없는 바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연행을 갈 때 자신에게 준 시 한 편을 외우며 이것은 중흥 이후 시집 중에서 드물게 지은 것으로 글자 하나 말 하나라도 빼거나 늘이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sup>16)</sup>고 서술하였다. 이러한 기록을 통해 볼 때 이세화의 문학적 재능은 당대에 나름 인정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당시 그의 시문이 대중적인 사랑을 받은 데에는 기사년의 일로 높아진 인망이 상당 부분 후광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세화는 당대에 애주가로도 꽤나 알려진 인물이기도 하다. 『쌍백당집』에 수록된 시 중에서 술이 등장하는 시가 110여 수나 된다는 사실만으로도 이세화가 술을 얼마나 즐기고 가까이 했는지를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다. 또한 『숙종실록』에 기록된 내용을 통해서도 그러함을 확인할 수 있다. 숙종은 1694년 “술은 해로운 것이니 인신(人臣)은 또한 마땅히 경계해야 한다. 내직에 있는 사람도 많이 마시면 반드시 일을 폐하게 되는데 외직에 있는 사람들은 더욱 심하니, 오늘날의 신료들은 마땅히 더 경계하고 성찰해야 한다.”<sup>17)</sup>며 술을 경계할 것을 명하였다. 이에 이세화가 그 명을 받들어 당장 술을 끊자, 승지 서문유(1651-1707)가 “이세화는 평소에

16) 李廷濟, <雙柏堂集跋>, (李世華) 『雙柏堂集』, “蓋先生未甚留意於章, 句鉛槧之末, 而正大之氣, 豪爽之風, 發於咏唾吟哢之間者, 世人得之如拱璧. …… 明谷崔公, 嘗以爲雙柏堂, 爲陶威公之綜理, 而文詞清越, 近世操觚家所不及, 仍誦其贈別燕行詩一篇曰, 此中興以後詩集中所稀爲之作云, 今其隻字片言, 不宜遺漏.” 여기서 명곡 최석정이 칭송한 시는 62구에 달하는 칠언고시 <贈崔汝和赴燕之行>을 말하며, 『雙柏堂集』 卷1下에 편차되어 있다.

17) 『숙종실록』 숙종 20년 갑술(1694) 10월 4일 기사.

술을 즐겨 일찍이 입을 떼지 않았는데, 성상께서 경계하시자 드디어 술잔을 가까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릇 많이 마시던 사람이 갑자기 딱 끊으면 반드시 병이 나게 되는 것이기에, 신은 이세화를 위해 걱정하는 것입니다.”하니, 임금이 “경계했던 까닭은 너무 과하게 마시지 말도록 한 것이니, 끊을 것은 없다.”고 하였다고 한다.<sup>18)</sup> 하지만 이세화는 이때부터 6년 동안 술을 끊었다가 관직에서 물러난 후에야 비로소 술을 마셨다고 한다.<sup>19)</sup> 그가 관직에 있는 동안 단주(斷酒)를 한 것은 관직에 있으면서 술 때문에 일을 그르친 전과가 있어 스스로를 경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술을 경계하라는 임금의 명에 따르기 위함이었다. 그의 충심과 절제력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세화는 술을 좋아하고 즐기기는 하였지만, ‘酒無量不及亂’(술은 한량을 두지 않고 마시되 뜻을 어지럽히는 지경에는 이르지 않게 한다.)라는 주도를 잘 지켰던 것으로 보인다. 술을 좋아하고 즐겨 마시는 사람 중에는 그릇된 주사로 인해 구설수에 오르고 논란이 된 경우도 적지 않다. 채유후(1599-1660)는 당대에 술을 즐긴 사람으로 유명한데 그의 즐기에는 “술을 좋아하여 술에 취한 채 인사불성인 적이 많고, 너무 소탈하여 위 의가 없었다.”<sup>20)</sup>는 내용이 있다. 그리고 오도일(1645-1703)의 즐기에는 “성품이 단정하지 못하고 정성스러움이 부족하며 기(氣)를 숭상하고 남을 업신여기기를 좋아하여 술이 취하면 같은 좌석에 있는 사람을 욕하는 일이 많았다.”<sup>21)</sup>라는 내용이 있다. 이처럼 술을 제아무리 좋아한다 하더라도 정도를 넘어선 주사가 잦으면 그 인물에 대한 평판에도 흠을 남기기

18) 『숙종실록』 숙종 20년 갑술(1694) 10월 27일 기사.

19) 南九萬, <吏曹判書忠肅李公神道碑銘>, “公居常愛酒, 遇輒引滿, 在度支日, 有旨戒麴蘖, 斷飲者六年, 乞休後始細傾矣.”

20) 『현종개수실록』 현종 경자(1660) 12월 26일 기사.

21) 『숙종보궐정오』 숙종 29년 계미(1703) 2월 14일 기사.

마련이다. 하지만 이세화의 경우는 술을 즐기기는 하였으나 그로 인해 구설수에 오르거나 불상사가 발생한 적은 없었다. 이는 충실하고 소박한 그의 사람됨과 청렴하고 검소한 그의 삶의 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sup>22)</sup> 이세화의 시에서 술은 시흥(詩興)을 고취시키는 기능을 하기는 하지만 문학적 상상력을 불어넣는 기능을 하지는 않는다. 그의 시에서 술은 과장 없는 사실 그대로의 현실과 자신의 일상을 담백하게 담아내는 소재로만 활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혹 이것이 그의 문학적 재능 부족이나 문학적 상상력의 결핍을 지적하는 빌미가 될 수도 있겠으나, 이는 그렇다기보다는 사실적이고 현실적인 측면을 중시하며 질박함이 많고 가식이 적었던 그의 성격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3. 이세화의 시 속에 담긴 술의 일상성

이세화는 효종 8년(1657, 28세) 식년 문과 병과에 합격하여 벼슬길에 오른 후 숙종 25년(1699, 70세) 치사(致仕)하기까지 40여 년을 관직에 몸담았으며, 1701년 72세에 세상을 떠났다. 이세화의 벼슬길에서 그의 삶을 크게 좌우했던 사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는 현종 4년(1663, 34세) 평양판관으로 있을 당시 형장을 지나치게 써서 사람이 죽어나간 사건으로 인해 2년 동안 의주로 유배되었던 사건이며,<sup>23)</sup> 다른 하나는 숙종 15년

22) 『숙종실록』 숙종 27년 신사(1701년 8월 15일에 기록된 이세화의 졸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이세화는 사람됨이 충실·소박하고, 幹局이 있었으며, 청렴·검소함이 남보다 뛰어났었다. 그는 질박함이 많고 가식이 적었기 때문에 時議가 그를 자못 가볍게 여겼다.”

23) 의주 유배 당시에 지은 시로는 오언율시 <龍灣謫所> 2수와 칠언고시 <謫居龍灣咏菊> 1수가 있는데(용만은 평안도 의주의 옛 지명이다), 술직히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았기에 술을 통해 당시의 불만과 불평을 털어놓거나,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 근심 걱정이 많았을 것이기에 술에 의탁해 그것을 잊고 싶은 심정을 시로 읊었을 만한데도

(1689, 60세)인 기사년에 인현왕후 폐위가 불가함을 극간하다 정주로 유배를 다녀온 사건이다. 의주 유배 후 이세화는 1669년이 되어서야 다시 벼슬길에 오르게 되지만 이 사건은 줄곧 그의 관료와 현달을 가로막는 족쇄가 되었다. 그리고 기사년의 유배에서는 비록 두 달 만에 풀려나기는 하였지만 갑술환국(1694) 이후 서용되기까지 5년 동안 파주에서 귀전(歸田) 생활을 해야만 했다. 이 두 사건은 그의 삶은 물론 시세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sup>24)</sup>

본고는 그 중에서 기사년(1689) 이후의 시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다. 기사년 이후에 창작된 시가 문집의 2/3 이상을 차지하는데다 술이 등장하는 시가 많다는 것이 하나의 이유가 되기는 한다. 하지만 그보다는 기사년 이전에 지은 시에서 술은 대부분 지인과의 만남, 이별, 모임 등과 관련된 시의 소재로 활용되며 우정을 상징한다거나 분위기와 흥취를 돋우어 준다거나 시흥을 불러일으키는 기능을 하는 것이 대부분인데,<sup>25)</sup> 이러한 술

---

이들 시에서는 술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또한 기사년 이전의 시 중에는 자신의 능력과 포부를 제대로 펼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시로 읊은 것이 여러 편 있지만 그러한 시에서도 술은 등장하지 않는다. 물론 전하는 시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선불리 단정을 내릴 수는 없지만, 현전하는 이세화의 시 중에는 술을 통해 불평불만을 토로한다거나 근심 걱정을 잊기 위해 술을 마신다는 내용을 가진 시는 찾아볼 수 없다. 이로 미루어 보건대 이세화는 술이 줄 수 있는 그러한 효능과 기능을 기대하거나 그런 것에 의존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24) 이에 대해서는 이항진의 『쌍백당 이세화의 시세계 고찰 - 기사년(1689) 이전과 이후의 시세계 대비를 중심으로』(『어문논집』 88, 민족어문학회, 2020, 141~167쪽.) 참조.

25) 기사년 이전의 시에서 술은 지인과의 이별 자리나 모임 자리에서 읊은 시에 주로 등장한다. 전라도 순무사(1675)에 제수된 후 형제와 헤어지며 지은 <乙卯巡撫使奉命時 留別兄弟子婿>에서의 '却把行裾又把杯'(가는 이 소매 잡고 또 술잔을 잡노라), 남구만의 숙부인 南二星(1625-1683)과 작별하며 지은 <到珍島別南仲輝>에서의 '離杯到手不成酣, 坐惜青山景欲曛'(이별주 마시어도 취하지도 아니하고, 앉아서 청산 경치 헤어짐을 아쉬워하네.) 등과 같이 술은 석별의 정을 함의하는 시어가 된다. 그리고 광릉 밤놀이를 하면서 읊은 <廣陵夜遊吟>에서의 '密席佳歡俱少長, 不知誰醉復誰醒'(친밀한 자리 老少가 함께 즐기니, 누가 취하고 누가 깬지 알지 못하네.), 경상도 관찰사 시절(1687) 경상도에서 벼슬을 살고 있는 계묘년(1663)과 임진년

의 기능은 한시에서 매우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선행연구에서 이미 자주 언급되었던 내용이므로 그것을 재차 부각시킬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술은 그 특성상 어느 시기, 어느 환경, 어느 누구와 마시느냐에 따라 그 기능과 역할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한 상황별로 시에 나타난 술의 기능을 찾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동일한 환경을 가진 일정 기간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여 그 시기의 시에서 술이 어떻게 형상화되어 나타나며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본다면 그 작가의 시에 나타난 술의 역할을 보다 더 명확하게 찾아낼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 1) 평온한 일상의 향유

이세화는 기사년 유배를 다녀온 후 파주에 내려와 ‘白首歸田，丹心戀闕’(흰머리로 고향에 돌아가 농사를 지으며, 일편단심 임금님을 사모하노라) 여덟 자를 써서 벽에 걸어 놓고 온갖 생각을 시로 지으며 생활하였다.<sup>26)</sup> 이 시기에 지은 시에서 술은 그의 일상의 일부가 되어 당시의 현실을 과장 없이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軒冕浮榮已棹頭	벼슬길의 뜬 영화 머리 흔들고,
肯將窮陋謾懷愁	궁벽함을 즐기니 근심할 일 없다네.
乾坤轉入無何境	천지간 무하정에 들어가니,
身世還如不繫舟	몸은 오히려 묶지 않은 배와 같다오.
碧水丹崖渾勝境	푸른 물 붉은 벼랑 모두 좋은 경치요,

(1652)의 진사시 급제자들과의 회동에서 지은 <達城榜會吟>에서의 ‘樽前更喜羣賢至，況有詩翁竟日留’(술잔 앞에 다시 여러 손님 와서 기쁘고, 하물며 詩翁이 종일 있고자 함에랴.) 등과 같이 술은 시흥을 고취시키고 모임의 흥취를 북돋아주는 기능을 한다.

26) 崔奎瑞, <行吏曹判書贈領議政李公諡狀>, “七月還栖于坡山先墓下，與兄弟子侄談笑怡愉。但書‘白首歸田，丹心戀闕’八字，揭題壁上用作詩寓意馬。”

黃花白酒揜佳遊    노란 꽃 흰 술 다 아름다운 놀이라네.  
江樓昨夜相尋約    어젯밤 강변의 누각에서 약속했으니,  
倘許茅齋半日留    허락한다면 초가집에서 한나절 머무르리.

이 시는 조사석(1632-1693)에게 보낸 <寄趙相國韻> 2수 중 제1수이다. 조사석은 1688년 좌의정에 제수되지만 나아가지 않고 임진강으로 내려온 이후 신미년(1691년) 당인(黨人)의 무함을 받아 고성으로 귀양 가기 전까지 그곳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sup>27)</sup> 『쌍백당집』에 수록된 시 중 조사석과 관련된 시가 50수가 넘을 정도로 들은 서로 자주 왕래하며 술과 시를 즐겼다. 이 시의 수련에서 볼 수 있다시피 이세화가 파주에서 평온한 일상을 보낼 수 있는 이유는 벼슬이니 세상의 부귀영화니 하는 것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가난함을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도학자처럼 안빈낙도적인 삶을 추구하지도 않는다. 그는 현재 하늘로 지붕을 삼고 땅으로 자리로 삼아 자연이라는 큰 집에서, 서강(西江)을 다 마실 만큼 웅장한 마음으로, 하늘 밖의 푸른 바다가 하나의 작은 술병으로 여겨질 정도로 호방한 삶을 살고 있다.<sup>28)</sup> 이세화에게는 엇매일 것 없는 자유로운 몸으로 아름다운 자연을 즐기며 술을 마실 수 있는 지금 이곳이야말로 무하경(無何境), 즉 이상향인 것이다.<sup>29)</sup> 여기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이세화가 찾은 이상향은 그가 술을 통해 찾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에게 이상향은 술에 의탁해야만 갈 수 있다거나 문학적 상상력을 동원해야만 불

27) 조사석의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는 조태억이 찬술한 <叔父議政府左議政忠憲公府君墓碣銘>(『謙齋集』 卷35) 참조.

28)李世華, <次趙相國韻>, “莫說柴門與葛樞, 乾坤席幕大舒鋪. 西江吸盡心猶壯, 天外滄溟一小壺.”

29) 無何境은 『莊子』 <逍遙遊>에 나오는 말로 無何有之鄉을 가리키며 이상향을 의미한다. 있는 것이란 아무것도 없는 곳이라는 말로, 장자가 추구한 무위자연의 이상향을 뜻한다.

수 있는 그런 초현실적인 세계가 아니다. 세상 욕심 버리고 가난을 즐기며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곳, 현재 자신이 생활하는 현실 속의 이곳이 바로 이상향인 것이다. 술은 그런 세계에서의 생활을 더 즐겁게 해주는 보조적 기능을 할 뿐이다. 즉, 이세화는 술을 통해 초현실적인 이상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이상향에서 술을 즐기는 것이다.

秋山寥落掩柴荆	가을 산은 쓸쓸하고 사립문은 닫혔는데,
日暮栖禽上樹鳴	해 저문 나무 위에 새들만 지저귀네.
醉倚風櫺無一事	취하여 난간을 의지하니 할 일이 없어,
呼兒覓紙句始成	아이 불러 종이 가져오라 하여 시를 짓누나.

이 시는 어느 가을 저녁에 지은 <秋日偶吟>이다. 이 시에는 농사일도 마무리되어 할 일이 없는데다 찾아오는 이도 없어 적적하고 무료함마저 느껴지는 가을 어느 날 술과 시로 하루를 보내는 이세화의 모습이 담겨져 있다. 이세화에게 귀전 생활은 그리 어색하거나 견디기 힘든 일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는 의주 유배에서 풀려났을 때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관직에서 물러나 있을 때마다 집으로 돌아가 몸소 농사일을 하며 지내왔기 때문이다.<sup>30)</sup> 하지만 그때는 젊은 시절이었기에 자신의 재능과 포부를 온전히 펼 수 없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을 것이며, 앞날에 대한 걱정과 불안감도 있었을 것이며, 머잖아 다시 벼슬길에 나아가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기사년 이후에는 기사년에 자신이 보여준 충절에 대한 자긍심이 있었고 60이 넘은 노년기에 접어든 이후였기

30) 『숙종실록』, 숙종 1년 을묘(1675) 9월 10일 기사, “이세화는 사람됨이 質實하고 소박하여 집에 있을 때는 항상 몸소 땅을 갈아 농사를 지었다” ; 南九萬, <吏曹判書忠肅李公神道碑銘>. “且我國士夫, 以京爲家, 以祿爲養, 以終其身, 其能食其力而休其老者尠矣. 若公去職則輒歸田, 手把鉞鍤, 身親播種, 自服野服之勞, 故能不濡滯於進退之際.”

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편안한 마음으로 귀전 생활을 할 수 있었다. 이세화에 술은 그런 생활에 활기를 더 해주는 청량제 같은 것이었다. 다음시는 유지발(柳之發, 1633-1705)의 시에 차운한 <次柳起之韻>이다.

含杯賭醉夕陽天    석양 질 무렵 술이 취해 술내기를 했는데,  
 指點前江來去船    앞강에 오고가는 배를 손가락으로 가리키기였다오.  
 廻首風塵機已息    고개 돌리니 風塵에 機心 이미 식었으니,  
 不妨詩酒度殘年    시와 술로 남은 생을 보내는 것도 괜찮으리.

이세화는 유지발과 함께 강가에서 강을 오가는 배를 가리키며 술내기를 하는 등 즐거운 시간을 갖는다. 오래지 않아 풍진 때문에 술내기가 시들해졌다. 여기서 풍진은 바람에 날리는 티끌일 수도 있고, 세상의 어지러운 일일 수도 있다. 즉, 내기를 그만두게 된 것이 날리는 먼지 때문일 수도 있고, 오가는 배를 보며 자꾸 풍진세상이 떠오르게 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어찌되었든 귀전 생활을 하며 때때로 이렇듯 친구와 즐겁게 술을 마시고 시를 짓고 하는 것은 그의 일상에 소소한 즐거움을 더해주기도 한다.

사람들이 술을 마시는 이유는 저마다 다를 것이다. 정철(1536-1593)은 일찍이 자기가 술을 마시는 이유를 불평, 우흥(寓興), 손님 접대, 남이 권할 때 거절하기 어려움 때문이라 하였다.<sup>31)</sup> 하지만 생활하다 보면 술을 마시는데 어떠한 특별한 이유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많다. 술은 기쁜 일이 있을 때 그 기쁨을 배가시키기도 하고,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그 울적함이나 근심을 덜어 내기도 하지만, 그런 이유가 없어도 그저 술을 좋아하기 때문에 마시는 경우도 많다. 특히 술을 즐기고 좋아하는 사람의

31) 鄭澈, <戒酒文>, 『松江集』原集 卷2, “某之嗜酒有四, 不平一也, 遇興二也, 待客三也, 難拒人勸四也.”

경우라면 더욱 그러할 것이다. 특별한 이유 없어도 즐기게 되는 술, 무탈하고 무난하고 평범한 일상에서 술을 즐긴다는 것은 소소한 행복이다. 그러하기에 술은 때로 그런 평온한 일상에 대한 일종의 향유인 것이다. 그러므로 귀전 생활을 하는 이세화에게 술은 곧 그의 일상을 더욱 평온하게 보이게 하는 역할을 한다.

## 2) 친구에 대한 그리움과 기다림

이세화가 파주에서 귀전 생활을 하는 동안 지인들이 심심치 않게 방문을 해 왔던 듯하다. 몸소 농사를 짓고 자연과 벗하며 평온한 나날을 보내고는 있지만 그래도 때로는 무료하고 적적함을 느끼는 날도 적지 않았을 것이다. 특히 자주 왕래하던 조사석이 1691년 고성으로 유배를 떠난 후로는 더욱 그러하였을 것이라 짐작된다. 그렇기 때문인지 이세화의 시에서 술은 친구에 대한 그리움과 기다림으로 형상화 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客自龍淵至    손님이 스스로 용연을 찾아와,  
 携杯日已斜    술 잔 들자 이미 해가 기울었구나.  
 柴門相送後    사립문 앞에서 서로 헤어진 후,  
 誰復問山家    누가 다시 이 산골을 찾아오려나.

이 시는 임윤원(任胤元, 1645-1712)의 시에 차운한 <次任士長韻>이다. 용연은 파주 파평산 서쪽 기슭에 있는 연못이므로 이를 통해 이세화가 기사년 이후 파주에서 지낼 때에 지은 시임을 알 수 있다. 함께 술잔을 기울이다 보니 어느새 날이 저물어 헤어져야 할 때가 되었다. 임윤원과 헤어지는 것도 아쉽지만 그가 가고나면 언제 누가 다시 자신을 찾아올지 벌써 누군가가 그리워진다. 이 시에서 술은 친구에 대한 그리움을 대변해주는 역할을 한다. 혼자서라도 술을 즐기며 평온한 나날을 보내고는 있지

만 그래도 때때로 친구가 찾아와 함께 술을 즐길 수 있다면 그날은 더 멋진 하루가 될 것이다.

다음 시 두 수는 『山林經濟』의 저자이자 실학자로 이름난 홍만선(洪萬選, 1643-1715)의 시에 차운한 <次洪士中>과 그에게 준 <贈洪士中>이다.

蓬門何事强重開    사립문은 어찌서 다시 열려 있는가,  
爲是佳朋今又來    이는 좋은 벗 지금 다시 왔기 때문이지.  
山雨未收前路近    산비는 걷히지 않고 앞길까지 왔으니,  
不妨投轄勸深杯    수레 비녀장 빼어놓고 잔 가득 술 권해도 무방하리.

相送柴門思未裁    사립문에서 헤어진 뒤 그리움 그치지 않았는데,  
居然玉露滿壺來    뜻밖에 귀한 술 병에 가득 왔구나.  
爲囑留別慙歉意    이별의 아쉬움 은근한 정 깊더니,  
剩得愁容醉後開    시름의 모습이 술 취하니 보이네.

위의 시에는 다시 찾아온 홍만선을 반기며 비가 쉽게 그칠 것 같지 않으니 함께 술을 맘껏 즐길 수 있다는 즐거움이 담겨져 있고,<sup>32)</sup> 아래의 시에는 헤어진 후 늘 그리워했던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귀한 술을 들고 찾아온 것에 대한 반가움과 또 다시 헤어져야 하는 아쉬움이 함께 어우러져 있다. 이렇듯 술은 이세화의 일상에서 친구에 대한 그리움과 기다림이 투영된 소재로 활용된다.

柴扉此夕爲君開    오늘밤 그대 위해 사립문을 열었으니,  
珍重歸驂且莫催    진중하게 돌아갈 길 재촉하지 마오.

32) 투轄(投轄)은 손님을 만류하여 못 가게 한다는 뜻이다. 漢나라 때 문학가이자 서예가인 陳遵은 자신을 찾아온 손님과 맘껏 술을 마시기 위해 손님이 타고 온 수레의 바퀴에서 비녀장을 빼 우물에 던져버려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돌아가지 못하게 하였다고 한다. (『漢書』 <陳遵傳>)

谷鳥近筵無異客	골짜기 새 다가옴은 낯선 손님 없음이고,
山童進酒有餘杯	아이가 술 내음은 남은 술잔이 있음이라.
西園碧草三春過	서쪽 동산 푸른 풀 삼춘(三春)이 지나가고,
南陌紅塵一夢回	남쪽 들판 붉은 티끌 한바탕 꿈으로 돌아갔네.
他日小甕新釀熟	훗날 작은 독에 새 술 익으면,
倘看門外好人來	문밖에 좋은 벗 찾아오는 것 볼 수 있겠지.

이 시는 정중경의 시에 차운한 <次鄭仲耕韻>이다. 정중경이 누구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이세화가 1652년 사마시에, 1657년 식년 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는데 정중휘(鄭重徽, 1631-1697)란 인물이 똑같은 시기에 사마시와 식년 문과 병과에 합격한 것으로 보아 그 사람일 것으로 추정된다.<sup>33)</sup> 과거급제 동기이기도 하고 오랜 세월 우정을 나눴던 지기인 만큼 골짜기의 새도 낯설어 하지 않을 정도로 이세화를 자주 찾아왔던 듯하다. 함께 자주 보낸 시간들은 마치 한바탕 꿈만 같고 이제는 헤어져야 하는 상황이다. 언제 다시 볼지 모르지만, 훗날 다시 찾아올 친구를 위해 정성껏 술을 담가두려 한다. 새로 담근 그 술이 익을 무렵에는 다시 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면서. 이 시에서는 함께 마시는 술이 흥취를 북돋아주는 역할을 한다면, 새로 담근 술은 친구에 대한 그리움과 기다림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 시 <吟贈友人>에도 친구를 그리워하고 기다리는 마음이 잘 담겨져 있어 함께 음미해 볼 만하다.

君來未及花開節	자네 온 것이 꽃피기 전이라서,
山色偏微不解陰	산빛의 음산함은 아직 풀리지 않았었지.
萬朶杜鵑吾自種	내 몸소 일만 송이 진달래꽃 심어놓고,
前山春晚待鶯音	앞산에 봄이 오면 자네 발자국 소리 기다리겠네.

33)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시스템 <http://people.aks.ac.kr>

이 시에는 비록 술이 등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친구에 대한 그리움과 기다림이 잘 형상화되어 나타나 있으며, 이세화의 순수함과 진심까지도 느낄 수 있다. 비록 이 시가 친구 누구에게 준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자신을 생각하고 그리워해 찾아주는 이라면 그 누구라도 반갑고 고마운 사람이므로 굳이 그 친구가 누구인지를 확정지를 필요는 없다. 그러하기에 이세화도 시의 제목에 굳이 친구 누구에게라고 분명하게 명시하지 않았을 터이다. 이 시에 비록 술은 나타나지 않지만, 그리워하고 기다리던 친구가 오면 맑것 술을 마시며 회포를 풀 것임은 자명하다.

### 3) 연군과 감은

이세화의 시에서 술은 일상에서 새삼 임금을 사모하고 그리워하게 하고 임금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 세화의 시세계에서 충심은 기사년 이전의 시에서도 기사년 이후의 시에서도 줄곧 드러나는 양상이기는 하다.<sup>34)</sup> 충성이야 신하된 자로서 당연히 가져야하는 도리이긴 하지만, 그의 충심이 남다를 수 있었던 이유는 숙종에게 평소 감사하는 마음이 깊었기 때문이다. 이세화는 효종 8년(1657, 28세)에 식년 문과 병과에 합격하여 관직에 나아갔지만, 현종 4년(1663, 34세) 평양판관으로 있을 당시 형장을 지나치게 써서 사람이 죽어나간 사건으로 인해 영원히 서용하지 않는다는 처벌과 함께 의주로 유배되고 만다.<sup>35)</sup> 유배에서 풀려난 후에도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 주변의 반대로 쉽사리 관직에 나아가지 못하였다. 하지만 이세화는 현종에게 천성이 지극히 충성스럽고 효성스러웠으며 세상을 구제할 수 있는 재주를 겸하였다 인정 받은 덕에 현종 10년(1669) 다시 관직에 나아갈 수 있었다. 그리

34) 이황진(2020), 앞의 논문, 144~150쪽.

35) 『현종실록』 현종 4년 계묘(1663) 12월 3일 기사.

고 숙종 역시 이세화가 나라를 맡아 다스릴 수 있는 그릇이라고 여겨 사람들이 비난하는 가운데에서도 강력히 보호하였으며 오랫동안 버려져 있던 가운데에서 특별히 선발하여 기용하였다.<sup>36)</sup> 이러한 까닭으로 이세화는 늘 임금께 감사하는 마음과 충심을 갖고 있었다.

기사년에 인현왕후 폐위가 불가함을 죽음을 불사하고 극간한 것은 그가 보일 수 있던 최대치의 충심의 발현이었을 것이다. 그는 임금이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목숨을 걸고 간하는 것이야말로 신하된 자로서의 당연한 도리이자 진정한 충정이라 여겼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 당시 중전을 폐출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세화는 눈물을 흘리며 “내가 삼조[효종·현종·숙종]의 은혜를 입었는데 지금 나라가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죽을 곳을 찾았노라.” 하며 대궐로 들어갔다고 한다.<sup>37)</sup> 또한 크게 노한 숙종의 친국을 받으며 거의 죽게 될 지경이었으나 “신이 평소 국사를 위하여 죽고자 하였는데 이제야 소원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다만 혹시라도 성상의 덕에 누가 될까 두려우며, 또 신의 죄가 비록 용서하기 어려우나 옥리에게 맡겨 죄를 다스리면 충분할 터인데 밤새도록 친히 국문하시니, 어찌 성상의 옥체를 상함이 있지 않겠습니까.”라고 큰 소리로 아뢰며 도리어 숙종의 건강을 걱정하니 이를 듣는 자들은 그가 형벌로 간한 것이라며 그의 충정을 칭송하였다고 한다.<sup>38)</sup>

그러나 상황은 그의 뜻과 비람과는 달리 결국 인현왕후는 폐위되고 기

36) 南九萬, <吏曹判書忠肅李公神道碑銘>, 『藥泉集』 卷18, “有忠孝至性, 濟之以救時之才具, 受知顯考最深. 及當宁嗣服 遵先王遺旨, 許以國器, 力保於衆咻之中, 特簡於久廢之際.”

37) 崔奎瑞, “四月坤殿將廢, 公聞而流淚曰, ‘吾受三朝厚恩, 今國事至此, 正得死所矣.’ 卽日促裝入城.”

38) 南九萬, <吏曹判書忠肅李公神道碑銘>, 『藥泉集』 卷18, “天威益震, 拷掠殆絕. 公抗聲曰, ‘臣平日願爲國事死, 今得所願. 第恐或累於聖德, 且臣罪雖罔赦, 付諸一獄吏治之足矣, 達夜親鞫, 不暇有傷於玉體乎.’ 聞者謂之刑諫.”

사환국으로 남인정권이 들어서며 자신은 정주로 유배당한다. 주변의 간언으로 그해 7월 사면되어 선영이 있는 파주로 돌아와 생활하였지만, 그는 숙종을 추호도 원망하지 않고 도리어 벽에 ‘白首歸田, 丹心戀闕’ 여덟 자를 적어놓고 그 다짐대로 생활하였다. 그러므로 기사년 이후 이세화의 삶에서 연군(戀君)과 감은(感恩)은 그의 일상의 한 부분이었다.

窮山猶識此身存	궁한 산골에 이 몸 있는 줄 어찌 알고,
來訪柴荊老樹村	고목 마을 사립문을 찾아왔는고
鄙吝已除欣得句	어색함 풀어지니 시를 지으며 즐겁고,
襟期自合爲開樽	기슴속 회포 절로 맞게 되니 술자리 벌렸구나.
青春病客能跨馬	청춘의 병객은 말도 능히 타련만,
白首衰翁不出門	백발의 쇠약한 몸 문밖도 못나가네.
祗今偃息皆君賜	지금의 살아감이 모두 임금의 주신 것이니,
共祝南山欲報恩	함께 만수무강을 빌며 은혜를 갚고자 하노라.

이 시는 <次沈秀士韻>이다. 기사년의 일로 인망이 두터워진 이세화를 그가 있는 파주로 찾아오는 이들이 적지 않았는데, 심수사 역시 그러한 사람 중의 하나로 보인다. 시기는 그가 유배에서 풀려나 파주로 돌아왔지만 고문의 후유증으로 아직 건강을 온전히 회복하지 못하였던 때일 것이다. 서로 안면이 없는 상태였지만 함께 시를 주고받으며 술도 마시다 보니 어느새 어색함은 사라지고 자연스레 기슴속 이야기까지 나누게 되었다. 혹 심수사가 이세화의 충정을 몰라주고 친국을 하고 유배까지 보낸 숙종이 야속하다는 말을 했을 수도 있겠다. 그러자 이세화는 도리어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 또한 임금이 주신 은혜라며 임금의 만수무강을 기원할 뿐이라 대답했을 것이다. 여기에서 술은 흥취를 돋우어 주며 어색함을 풀어주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지금의 삶에 대해 임금께 감사하는 마음을 한층 더 고취시켜주는 기능도 하고 있는 것이다.

春來日日祝天公 봄이 오니 날마다 하느님께 빌기는,  
 北海衢樽願不空 바다같은 구준 비지 않게 해달라 기원했소.  
 醉倚松巖瞻象魏 취하면 술 바위 의지하고 대궐 쪽 바라보며,  
 啖芹炙背激微衷 미나리 씹고 햇볕에 등 쬐이니 미미한 충정이 격해지네.

이 시는 <次韓鼎叔> 2수 중 제1수이다.<sup>39)</sup> 구준(衢樽)은 사람마다 실컷 마시도록 대로에 놓아둔 술동이라는 뜻으로 임금의 어진 정사를 비유할 때 쓰는 말이며,<sup>40)</sup> 상위(象魏)는 대궐의 문을 뜻한다. 이 시는 파주에서 귀전 생활을 할 당시 절친한 벗인 한정숙이 찾아와 함께 술을 마시며 읊은 것으로 보인다. 평소 임금의 강령을 기원하며 지내는 이세화의 일상이 잘 담겨져 있다. 미나리 씹고 등에 햇볕을 쬐 수 있는 그런 사소한 일상마저도 감사하게 여겨지며 임금에 대한 충정이 더욱 깊어지는데, 그러한 감정은 술을 마시면 새삼 더 격렬해진다.

未復重宸奉御床 다시는 대궐에서 용상을 받들지 못하겠기에,  
 白頭餘喘寄桑鄉 흰머리 남은여생 고향 땅에 붙이었네.  
 葵誠欲做朝天夢 해바라기 같은 충성은 조정의 꿈만 꾸면서,  
 醉睡風櫺不覺涼 취하여 경치 좋은 난간에서 졸아도 서늘함 모른다오.

이 시는 이세화가 나이 70이 되어 치사하고 난 후 고향으로 돌아와 ‘취(醉)’ 자를 가지고 자신의 다양한 심정을 시로 읊은 <醉字八詠> 8수 중 제3수이다. 관직에서 완전히 물러났기에 다시는 직접 임금을 모실 수는

39) 한정숙이 어떠한 인물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쌍백당집』에 그와 관련된 시가 2수(<寄韓鼎叔兼示柳仲綏>, <次花山壽席韓鼎叔韻>) 더 있는 것으로 보아 상당히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0) 劉安이 저술한 『淮南子』<繆稱訓>에 “聖人之道，猶中衢而置尊邪，過者斟酌，多少不同，各得所宜.”(성인의 도는 마치 대로에 술동이를 놔두고서 지나가는 사람마다 크고 작은 양에 따라 각자 적당히 마시게 하는 것과 같다.)라는 말이 나온다.

없지만 남은 생애 동안 임금을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것이 자신이 현재 할 수 있는 최선의 충성이다. 해바라기처럼 일편단심 임금을 사모하는 마음과 술이 있기에 싸늘한 날씨에도 서늘함을 느끼지 못한다. 이렇듯 이세화에게 술은 그의 일상에서 임금에 대한 감사와 사모의 마음을 새삼 고취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 4. 결론

지금까지 쌍백당 이세화(1630-1701)의 시 중에서 술이 등장하는 시를 대상으로 하여 그의 일상 속에서 술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를 살펴보았다. 『쌍백당집』에 수록된 시 중 술이 등장하는 시가 전체 시의 2/5가 넘는 비중을 차지할 만큼 이세화는 술을 좋아하고 즐긴 애주가였다. 하지만 술 때문에 구설수에 오르거나 문제가 된 적은 없었던 걸로 보아 ‘酒無量不及亂’(술은 한량을 두지 않고 마시되 뜻을 어지럽히는 지경에는 이르지 않게 한다.)라는 주도를 잘 지켰던 것으로 보인다.

필자가 본고에서 이세화의 시 속에 담긴 술의 일상성을 살펴본 이유는 그의 시에 등장하는 술은 술 관련 선행연구에서 다루어졌던 내용들과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즉, 그간 술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대부분이 술의 공효와 칭송, 술의 폐해와 경계, 취흥과 풍류, 근심 걱정을 잊기 위한 혹은 자기위안을 위한 수단, 신선세계나 이상향 추구 등과 같이 술이 줄 수 있는 효능이나 술에 취한 후 얻게 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며 문학적 의미가 부여되어왔다. 하지만, 이세화의 많은 시에 술이 등장하고는 있지만 선행연구에서 언급되었던 그러한 내용들은 잘 나타나지 않는다. 이세화의 시에서 술은 오히려 평범한 일상을 대변해 주거나 무난한 일상에 소소한 즐거움을 더해주며 이세화의 일상을 드러

내주는 정도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이세화가 술 그 자체에 어떠한 목적이나 의미를 두고 시를 읊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일상을 읊은 시 속에 자연스럽게 그가 좋아하고 즐겼던 술이 담겨지게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기사년 이후에 지어진 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을 때, 필자가 파악한 이세화의 시 속에 담긴 술의 일상성은 세 가지이다. 첫째, 이세화가 귀전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평온함이 술을 통해 형상화 되어 나타난다. 둘째, 친구에 대한 그리움과 기다림이 술로 표출되어 나타난다. 셋째, 술은 임금을 사모하는 마음과 임금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고취시키기도 한다. 이처럼 이세화의 시에서 술은 그의 일상을 꾸밈없이 담백하게 담아내는 소재로 활용된다. 이는 질박함이 많고 가식이 적었던 이세화의 성격과 검소하고 청렴했던 그의 삶의 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인다. 또한 이세화의 시에서 술은 과장 없는 사실 그대로의 현실과 자신의 일상을 담백하게 담아내는 소재로만 활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술이 문학적 상상력을 불러넣는 기능을 하지는 않는다. 이것이 그의 문학적 재능 부족이나 문학적 상상력의 결핍을 지적하는 빌미가 될 수도 있겠으나, 이는 그렇다기보다는 사실적이고 현실적인 측면을 중시하며 질박함이 많고 가식이 적었던 그의 성격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세화의 시 중에는 본고에서 소개한 시 외에도 그의 일상을 들여다보는 듯한 느낌을 주는 시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따라서 이세화는 일상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를 시의 중요한 소재로 삼았던 작가였다고 할 수 있다. 조선중기까지의 한시에는 상대적으로 드물게 채용되었던 일상이 18세기 이후에 다양하게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며, 18세기는 일상의 문학적 가치에 대한 탐색이 보다 광범위하게 시도된 시기였다고 평가받는다.<sup>41)</sup>

41) 김동준(2006), 앞의 논문, 6~28쪽.

이세화가 자신의 일상을 시의 중요한 소재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의 시에는 17세기말에서 18세기로 넘어가는 시기의 시적 경향이 일정 부분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李世華, 『雙柏堂集』

南九萬, 『藥泉集』

南鶴鳴, 『晦隱集』

趙泰億, 『謙齋集』

崔奎瑞, 『艮齋集』

崔奎瑞, 『行吏曹判書贈領議政李公謚狀』, 『富平李氏大同譜』

鄭澈, 『松江集』

『숙종보궐정오』

『숙종실록』

『현종개수실록』

부평이씨대중회 <http://www.bplee.net/>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시스템 <http://people.aks.ac.kr>

김남기, 「일기 등의 잡기에 나타난 조선후기 문인의 일상과 의미」, 『국문학연구』 14, 국문학회, 2006, 105~124쪽.

김동준, 「한시에 나타난 일상의 의의와 역할」, 『국문학연구』 14, 국문학회, 2006, 31~62쪽.

김진욱, 「송강 한시의 이상향 모티프 酒·夢·鶴」, 『한국시가문화연구』 92, 한국시가문화학회, 2011, 91~118쪽.

성범중, 「한문학에 나타난 술에 대한 인식과 그 형상화 양상」, 『한국한시연구』 6, 한국한시학회, 1998, 315~362쪽.

안영훈, 「한국 고전작가와 술 - 이규보와 정철을 중심으로」, 『동아시아고대학』 55, 동아시아고대학회, 2019, 9~21쪽.

윤재환, 「호주 채유후의 시에 나타난 술의 기능과 한계」, 『한국한시연구』 17, 한국한시학회, 2009, 93~119쪽.

- 이재선, 「술의 문학적 위상」, 『한국문학주제론』, 서강대학교출판부, 1989, 208~225쪽.
- 이황진, 「쌍백당 이세화의 생애와 『쌍백당집』 간행 경위 고찰」, 『열상고전연구』 70, 열상고전연구회, 2020, 228~241쪽.
- 이황진, 「쌍백당 이세화의 시세계 고찰 - 기사년(1689) 이전과 이후의 시세계 대비를 중심으로」, 『어문논집』 88, 민족어문학회, 2020, 141~167쪽.
- 장덕순, 「술과 문학」, 『한국식문화회지』 4-3, 한국식생활문화학회, 1989, 275~279쪽.
- 장사선, 「한국문학에 나타난 술」, 『주류산업』 16-2, 한국주류산업협회, 1999, 28~40쪽.
- 황병익, 「고전시가에 나타난 술의 문학적 의미 고찰」, 『한국시가문화연구』 37, 한국시가문화학회, 2016, 285~326쪽.

## ABSTRACT

A Contemplation of Alcohol Contained in the Poems  
of Ssangbeakdang Lee Se-hwa

Lee, Hwang-Jin

Ssangbaekdang Lee Se-hwa(1630-1701) was a man who had high reputation during his life time with the acknowledgement of his integrity and loyalty by his strong opposition of dethroning of Queen Inhyeon in the year of Gisa (1689). This article has the subject of poetry with the alcohol showing in the poems of Lee Se-hwa to contemplate what role would the alcohol in the ordinary life style. There is a substantial portion, over 2/5 of entire poems, emerging with the alcohol in the literature collection of Lee Se-hwa, Ssangbaekdang-jib. However, the alcohols emerging in his poems displayed different trend from the contents handled in the alcohol related previous studies. The alcohol related previous studies have focused on obtaining the virtue and praise of most alcohols, ill-effect and borderline of alcohol, Chwiheung (fun and excitement from alcohol intoxication) and poetic adventure, means for forgetting worries and concerns, and things obtaining after intoxicated to the alcohol or efficacy from alcohol, such as, fresh new world, striving for ideal scheme and it is granted with literature implications. However, in the poems of Lee Se-hwa, such efficacy of the alcohol is almost not displayed and the alcohol is mostly the case of facilitating the ordinary life style of Lee Se-hwa as the material to display the same.

When taking a look with the focus on poems written after the year of Gisa, there are three ordinary styles of the alcohol contained in the poems of Lee Se-hwa as this writer finds out. First, the tranquility that Lee Se-hwa felt while engaging in returning from government or civil service to the life in farming was displayed in embodiment through alcohol. Second, the longing and waiting for friend was demonstrated

with expression of alcohol. And, third, the alcohol might enhance the mindset to long for the king and mindset to appreciate the grace and blessing of the king. As such, within the poems of Lee Se-hwa, the alcohol was facilitated as the matter that contains his life style without being a superficial mean in a plane way. This may be attributable to the fact that is closely related to the personality of Lee Se-hwa who had significant simplicity with less of pretensions in terms and his attitude in frugal and dignified life style.

The 18th century has been appraised as the period when the search for the ordinary literature value was more broadly attempted. The ordinary style of the alcohol contained in the poems of Lee Se-hwa is considered as having the poetry tendency of the period from the end of 17th century to turn into the 18th century.

**Key Words** Le Se-hwa, Gisa(1689), Alcohols, Ordinary life, Ordinary styles

논문투고일 : 2020.07.22
심사완료일 : 2020.08.07
게재확정일 : 2020.08.12